연기돌 엇갈린 중간 성적표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류현진 디비전 3차전 출격

요우커 환영하는 판다 30마리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둔 29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판다 30마리가 레드카펫으로 이동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illegible])을 환영하고 있다 /뉴시스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없다

국세청 경제활성화 뒷받침위해 내년 말까지 면제

체납 폐업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화
연 매출 1000억미만 대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년 전 법인세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세무서로부터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졌다. 세무사를 통해 관련 경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증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는 매일 관련 내용을 해명하느라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놨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고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 세정지원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들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이른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 국가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던 때 행해져 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 숙박업과 여객 운송업, 농·어업과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에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스마트자동차나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하다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재기가 어려웠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 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청년 벤처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정지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하남 지하철' 2018년 개통

종로까지 40분이면 도착

2018년부터 경기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40분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하남시 덕풍동 시각공원에서 하남선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광역 철도 중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 주도로 건설된다. 지난달 국토부가 승인한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 계획에 따라 착공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남선 사업은 총 990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종점인 상일동에서 하남 미사·덕풍동·창우동까지 총 연장 7.7㎞에 5곳의 역사를 건설하게 된다. 전체 5개 공구 중 서울시가 1개 공구, 경기도가 4개 공구를 맡아 시행한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일~덕풍 구간은 2018년 말에, 덕풍~창우 구간은 2020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10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남에서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갈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진기자 hjn@

여야·세월호 유족, 3자회동 결렬

세부 협상내용 함구 30일 협상 재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족 대표가 29일 참사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다. 세월호 유가족이 각각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3자가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와 유족 대책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물론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협상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법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놓고 3자 모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새로운 안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안을 놓고 유족과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지만 유족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견을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총회를 거쳐 충분히 논의한 후 내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가 오히려 의견 일치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자신의 안에 대해 유족의 완전한 동의를 받고 나서 새누리당과 일괄 타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개회식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제2의 부시' 되나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미국이 새로운 중동 전쟁의 막을 올렸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이번엔 시리아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인 이슬람국가(IS)를 잡기 위해서다. IS는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 격퇴'를 선언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중동 국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연일 공습을 퍼붓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이는 공습의 비용이 일일 700만(약 73억원)~1000만 달러(약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도 시리아 전쟁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방으로 미국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가 적지 않을 듯 싶다. 전쟁에 발을 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유가가 출렁이며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전쟁이 몰고 올 후폭풍은 거세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 2011년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하고 철군한 뒤 그간 중동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자국민이 참수되고 이라크 내 상황이 악화하면서 결국 전쟁을 재개했다. 전쟁을 끝내겠다며 미국의 최고사령관으로 올라선 그가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알카에다 섬멸'을 외쳤지만 알카에다는 사라지지 않았다. IS도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가 '제2의 부시'가 되지 않길 바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 못 늦춰"

"지금 안하면 2022년까지 못해" '하후상박' 검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정을 절대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 일정을 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나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후상박' 식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더 깎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적합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다"며 "그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대신 책임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공기업도 이제는 특권을 행사하면 안되고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hj@

뉴스&뉴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회담

●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9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에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김문수 위원장을 필두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 12명, 소설가 복거일씨 등 외부 인사 6명 등 총 18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6개월 간 혁신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신형 방독면 '전투용 적합' 판정 받아

●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방독면이 2013년 1월부터 실시한 시험 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신형 방독면은 오는 11월 개발이 완료된다. 방사청은 내년에 양산을 시작해 2016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안유수 회장, 육로로 北 지원 나서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통일부 승인을 얻어 남북 간 최초로 내륙 육로 왕복 수송 방식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농업 협력 영농 물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0일 에이스경암의 이사장이자 에이스침대 회장인 안유수 이사장이 황해북도 농업 협력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직접 수송단을 인솔해 방북한다.

양측은 이번 영농 물자 협력을 통해 기존 사리원시의 온실 단지를 재정비하고 향후 추가 건설과 영농 기술 지원 교류 등을 통해 남북간 농업 협력의 실천적 모범 사례의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또 이번에 최초로 진행되는 내륙 왕복 수송의 상시화를 통해 영농 물자를 지원하고 황해북도에서 생산되는 일부 농산물을 남측에 육로로 들여오는 새로운 농업 분야 교류 협력의 모델도 제시할 방안이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대리기사, 김현 의원 고소

폭행 유가족 3명 영장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에 폭행을 방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당에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가 귀를 막고 세 식구 감싸기만 한다면 결국 국민과 멀어질 뿐"이라며 "어는 시일 내에 김 의원에 대해 윤리마속 외 심경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퇴와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제주 뱃길 수학여행 재개

연말까지 88개 학교 예약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뱃길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됐다.

29일 씨월드고속훼리(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잠정 중단과 학부모 기피 현상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선사와 제주 관광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안전한 뱃길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선사의 노력에 힘입어 인기 수학여행지인 제주도 뱃길 이용객이 늘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의 경우 지난 15일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88개 학교 1만3000여 명의 교사와 학생이 목포 항로를 이용, 제주도를 찾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현장 확인으로 선박 안전 솔루션이 입증된 국내 3대 여객선사다.

선사 측은 "안전 장비 체험과 비상 대피 훈련 등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국군의 날 빗속 리허설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충남 계룡대에서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리허설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맛집' 출연 대가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음식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전 제이미디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블 채널 ETN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외주 제작하던 김씨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음식점 업주들에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겠다며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를 하라는 김씨의 요구에 478명 업주들은 98만~33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도서 구입에 사용된 돈은 기부받은 금액의 8% 정도인 8100만원이었다.

김씨는 또 ETN 편성담당 등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달라고 청탁하며 1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손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주영기자 boa@

세월호 일반인 유족 "분향소 영정 철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모두 철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8일 유가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 분향소에도 영정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안산 분향소 영정은 원래 철수하려고 했다"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에서 일반인 유가족 폄하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경찰 "강력범보다 악성 민원인 더 힘들어"

경찰관들이 강력범 보다 악성 민원인을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경찰 서비스의 불만 고객 대응 방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밝힌 경찰 공무원 6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10.4%는 한 달에 평균 20건 이상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응답자의 22.5%는 악성 민원인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경찰관의 상황별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민원인의 문제 행동이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징계·승진 등 인사문제(3.85점), 근무환경 여건(3.71점), 동료나 상관과 마찰(3.70점), 강력범과의 대치(3.62점) 등의 순이었다.

민원인들의 문제 행동을 유형별로 보면 억지주장이나 부당한 요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욕설과 음담패설 등 무례한 언행(22.8%), '인터넷 국민신문고·SNS에 올리겠다'는 협박(16.6%), 소란·난동(13.2%)이었다. /에현우기자 cyclone@

기억키움학교 개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인 '기억키움학교'를 29일 서울시 강동구에 개소하고 현판식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생보재단, 치매 어르신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9일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인 '기억키움학교'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기억키움학교는 재단이 2011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주간 보호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로 낮 동안 인지기능 향상·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 경증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등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동구 기억키움학교를 포함해 서울, 제주 등 전국 13개 기관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00여 명의 치매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France

Français favorables à une ... se des 35 heures

'주당 35시간 노동시간' 재검토

프랑스인 61%가 주당 35시간의 노동시간을 재검토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61%가 산업·기업 크기별로 노동시간 재검토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선 일요일 영업 규제 조치를 푸는 문제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일요일 영업 규제안을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류 좌파 성향의 응답자가 65%를 지지해 놀라웠다.

metro Peru

Parque de las Leyendas abre paseos nocturnos

리마 '야간 사파리' 인기

페루 리마의 한 동물원이 야간 사파리 개장 기간을 연중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름에만 한정 운영하던 서비스를 가을·겨울에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야간 사파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회당 최대 9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보호자를 동반한 8세 이상 아동부터 들어갈 수 있다. 1인당 입장료는 50누에보 솔(약 2만원)이다.

아홉 살 친구 업고 4년간 등하교

아버지 걱정에 몰래 산길로…'특별한 우정' 대륙에 잔잔한 감동

허찬자오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다. 그 아이는 어린 어깨로 나의 하늘을 받치고 있다."

9세 중국 소녀 허영후이가 친구 허찬자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쓴 글이다. 몸이 아픈 친구를 업고 4년간 등교한 소녀의 우정이 대륙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허영후이는 신경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어 두 살 때부터 걷지 못했다. 아버지는 정신장애가 있고 어머니는 한 살 때 집을 나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불운한 가정사와 병으로 허영후이는 집에서 우울하게 지냈다.

할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허영후이는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류머티즘을 앓고 있던 할머니의 몸상태가 악화돼 허영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게 됐다. 이때 이웃집에 살던 허찬자오가 허영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겨우 아홉 살인 딸이 친구를 업고 등교한다는 말에 그의 부모는 반대했다. 하지만 허찬자오는 다음날부터 아버지의 눈을 피해 외지 산길로 허영후이를 업고 다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다 허찬자오는 항상 시간에 맞춰 친구 집으로 갔다. 학교까지 가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지만 개의치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은 전교에 알려졌다. 다른 학생들도 둘을 보면 길을 비켜주고 계단을 오를 때는 옆에서 같이 부축해줬다. 집에 갈 때는 돌아가면서 업어주기도 했다. 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교육·진화는 장학금을 후원했고 현지 정부는 지난해 가을 휠체어를 보냈다.

2010년 가을부터 함께 등하교를 한지 4년이 지났다. 둘은 얼마전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앞으로 중학교도 같이 다닌다. 허찬자오는 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더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포기했다.

둘은 이제 왕복 8㎞의 등하굣길을 함께한다. 허찬자오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본 친구들은 '사랑의 팀'을 만들어 허영후이를 도와주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신경을 써줘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허찬자오 덕분에 허영후이는 명랑해졌다. 허영후이는 "꿈에서 나는 항상 무술에 능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병이 나으면 경찰이 되고 싶다"고 장래희망을 밝혔다.

허찬자오의 꿈은 더 소박하다. 그의 꿈은 허영후이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 친구가 한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 proíbe festas ... te de aluno na ...

캠퍼스서 시신 발견돼 상파울루대 치안 심각

상파울루 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조차 좋지 않은 치안 상태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교내 치안 문제는 최근 상파울루대 캠퍼 내에서 한 남학생 시신이 발견된 후 더욱 불거졌다. 이 학생은 지난 주말 대학교 내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렸던 파티에 참석한 후 실종됐다.

이에 상파울루대 체다 측은 다음달 21일까지 대학 내에서의 파티 개최를 금지했다. 주제 로베르두 피게이라 교수에 따르면 "대학교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다"고 전했다.

상파울루 대학 내의 안전 불감증은 심지어 경비원에게까지 퍼졌다. 익명의 한 경비원은 "순찰을 도는 경찰 수가 적어 우리 역시 무섭다"고 밝혔다.

브라질 메트로 취재 결과 2시간 10분간 캠퍼스 내에서 마주친 순찰차는 단 한 대뿐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치안 활동에 불안하기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폴리케 마링스(24·금속공학과)는 "교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 조명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캠퍼스 안이 어둡다. 또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고 토로했다.

제퍼르송 사우가두(23·생산공학과)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강도 및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페르난두 자가지(24·광산공학과)의 경우 "이번처럼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치안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리=정지연 인턴기자

"풍선효과 부작용…일부 성매매 허용을"

성매매 특별법 10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됐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휴게텔·전화방·키스방·오피스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종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9일 서울 광장동 사무실에서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를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근절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2000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 '생계형 성매매 자활 지원해야'

김강자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되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2000·2002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말한다.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산됐으나 근절되진 않았다"며 "특히 어설픈 단속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는 등 부작용을 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10년 넘게 성매매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집장촌·유흥업소 등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어설픈 단속이 음성형 부추겨…유형별 차별화 정책 펴야"

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던 2009년 7만1593명을 기록했다가 2010년 2만8244명으로 줄어든 후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1만4608명이다.

김 교수는 "관내 집장촌의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음성형 성매매는 더욱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집장촌을 집중 단속해도 여성들은 또 다른 집장촌을 찾아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는 집장촌의 경우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주로 부모가 없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른 나이에 가출해 집장촌으로 흘러 들어온 여성들을 말한다.

"무조건 성매매를 근절하자며 집장촌을 집중 공략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자활 지원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다면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성매매도 유형별로 차별화 필요"

김 교수는 또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설픈 단속이 오히려 음성형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집장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단속이 안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음성형 성매매만 활기를 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는 경찰을 한 명도 확보해 주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 단속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담 경찰관이 마련되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면서 2004년부터 많은 아이들에게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정을 감안해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집장촌은 관리하고 음성형 성매매는 경찰을 확보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이 성매매특별법을 제도적 보완이 없거나 개선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는 앞으로 1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왜곡된 성문화 인식 여전해"

성매매특별법은 10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성문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1.07%인 27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14만7000여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집결지를 금지한 대신 개인적 행위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성매매 종사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로 0.045~0.127%였다. 성구매자에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은 약 0.007~0.066%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꼽았다.

그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노래방·술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를 놀이로 알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서 그 꿈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가 큰 문제"라며 "명품을 사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오히려 수요자가 적다. 이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돼 있고 프랑스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배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코스닥
2021.10 (-5.04)	565.27 (-8.33)

금리	환율
2.32 (변동 없음)	1058.00 (+11.50)

뉴스&뉴스

'겨울 이불 준비 하세요' 롯데마트가 10월 8일까지 전국 55개 매장에서 100% 거위털로 가득 채운 데트리스 퀴드쉘 5만9800원, 거위털 차렵이불을 3만9800원에 판매 한다 /연합뉴스

신입직원 연령 男 30-女 29

●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신입사원 채용에 나이를 감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인사담당자 268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적정 연령에 대해 29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신입사원 입사가 가능한 허용 나이로 남성 지원자는 '30세', 여성 지원자는 '29세'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사담당자 의견은 남녀 구직자 대상 모두 19.4%로 집계됐다 /정윤희기자

8월 경상수지 73억달러 흑자

● 지난달 경상수지가 7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년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2억7000만 달러로, 7월의 78억4000만 달러보다 5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건설수지 또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누적 흑자는 사상 최대폭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월 누적 흑자는 543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64억5000만 달러)보다 78억6000만 달러(16.9%) 많다 /송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화공감(이순,묘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51
2005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7003

UHD·OLED TV, 대중화 앞당긴다

제품 가격, 출고가 대비 절반 이상 낮춰
30~40인치대 모델로 대중화 박차

가전업체들이 차세대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UHD·OLED 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다. TV 시장은 현재 평면 LCD TV가 주류지만 점차 UHD·OLED 등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제품들은 초기에 초고가로 시장을 형성했지만 최근 패널 가격 인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의 선전 등으로 연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에 보다 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TV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대표적인 차세대 TV인 UHD는 최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대중화 되고 있는 분야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UHD TV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40인치 대의 보급형 모델을 200만원 선에 내놨다. 이에 힘입어 2분기 중국 UHD TV 시장 점유율을 32.1%까지 끌어올리며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1위를 지지했다. 올 1분기 5.2%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한 분기 만에 6.2배 성장한 것이다. 삼성이 중국 UHD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 2분기가 처음이다

이번달에는 미국 시장에서 대형 곡면 UHD TV를 40~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정가의 약 44% 할인해 정가 4000달러의 55인치 UHD TV를 2197달러에, 정가 5000 달러인 60인치 UHD TV는 2797 달러에 판매 중이다

LG전자도 지난 27일 55인치 곡면 OLED TV를 국내시장에서 399만원에 선보였다. 지난해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55인치 제품은 출고가가 1500만원 선이었다.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4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OLED TV는 백라이트 없이도 자체 발광하는 소자를 활용한 OLED 패널을 사용해 LCD 패널 TV보다 얇으면서도 화질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불량률이 개선되면서 패널 원가가 내려가 UHD TV 수준으로의 가격 인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가장 먼저 UHD TV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TCL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000 달러 미만의 UHD TV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497 달러에 불과한 40인치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하이센스-스카이워스-콩카-TCL-창홍-하이얼 등 중국 6대 TV 메이커 업체의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전 세계 UHD TV 점유율(매출액 기준) 합계 50%를 넘겼다. 이들 업체는 지난 5월에 OLED TV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10월에는 OLED UHD TV 신제품도 출시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차세대 TV 가격은 앞으로도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세계 최대 TV 시장인 중국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얼굴 인식 보안프로그램 신기하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광화문빌딩 드림엔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사례발표에 참석하기 전, 얼굴 인식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미래부 제공

'김치롤 파워' 롤드컵 평정하나

한국 대표 3팀 8강 진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8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8일부터 열흘동안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조별 리그 최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는 월드컵 토너먼트 방식과 같아 게임 약자 '롤(LoL)'과 '월드컵'을 합친 '롤드컵'으로도 불린다

8강 진출 티켓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조별 리그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한 삼성 화이트와 삼성 블루, 나진 실드는 각각 A·C·D조 1위로 8강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삼성 화이트는 대만에서 열린 A조 예선에서 6전6승의 기록을 세우며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싱가포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C·D조 조별 리그에서 나진 실드와 카붐e스포츠의 조별 리그 플레이 현장 모습 /라이엇 게임즈

싱가포르에서 28일 개최된 C·D조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C조 삼성 블루는 프나틱과 LMQ를 모두 1대 0으로 제압하며 OMG와 함께 조 1·2위 자격으로 8강에 오르게 됐다. 한편 D조에서는 줄곧 1위를 달리던 나진 실드가 클라우드 나인에 1대0으로 패했지만 클라우드 나인과 공동 1위로 8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이번 롤드컵 예선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미, 유럽, 중국에서 3개팀씩, 대만·동남아시아 2개팀, 브라질·터키·러시아·오세아니아·라틴아메리카에서 선발된 2개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했다

8강 이후 경기는 우리나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다. 8강전 개최지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4강은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이다.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최대 수용인원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결승전 장소였던 미국 스테이플스센터의 관중 1만1000명 기록을 충분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윤윤희기자 uniju@

카톡 자동 삭제

검열 걱정 없는 '에그샷'

검열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없이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트업 업체 디그샷은 '에그샷(http://eggshot.me)' 오픈베타 서비스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29일 공개했다

에그샷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그샷을 설치하면 카카오톡 사용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최대 24시간 후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서버에 기록도 남지 않는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보안 전송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정훈 디그샷 대표는 "에그샷에 적용된 특허(시한부 콘텐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다양한 SNS에서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 없이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에그샷 정식 버전을 오픈베타 테스트를 통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국헌기자 kmlee@

소송전서 벗어난 KB… 경영정상화 '탄력'

새 회장 선임 작업 속도 낼듯… 내달 2일 3차 회의서 후보군 10명으로 압축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KB를 스스로 떠나기로 결단을 내림에 따라 KB금융의 경영 정상화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차기 KB금융 회장과 KB국민은행 행장 선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키로 했다.

임 전 회장의 결단에 KB금융그룹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칫 전면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KB금융과 금융당국의 갈등 역시 해소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임 전 회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주력했었다.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달말 100명 내외인 전체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10여명으로 1차 압축하기로 했다. 전체 후보군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1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내외부 인사 60명을 비롯해 외부 전문기관·회추위원 추천 인사를 더해 100명을 정한다. 1차 후보군 압축은 각 회추위원이 1~5순위자를 추천해 상위 득점자 순으로 추리기로 했다. 1차 후보군 10여명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판조회를 하고, 이어 4차 회의에서 회추위원이 각각 1~3순위자를 꼽아 2차 후보군 상위 4명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2차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하고 이르면 내달 하순 최종 회장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회장 후보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전·현직 KB금융 고위직을 중심으로 차기 회장후보 하마평이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으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 김기홍 전 부행장, 윤웅원 현 KB금융지주 부사장, 남경우 전 KB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정부에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금융인이나 전직 관료를 KB금융 회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금융인 출신 후보로는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기 회장을 선임하는 일이야말로 KB금융그룹 사외이사들의 본분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사외이사 책임은 주진될것"이라고 밝혔다.

/채신화기자 min @metroseoul.co.kr

'거래 가뭄' 증시 계속된다

하루 거래액 6조 그쳐

내년에도 코스피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8년은 돼야 하루 평균 거래액이 7조원을 겨우 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주식시장의 일 평균 거래액이 올해 6조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추정치는 오는 2016년 6.5% 늘어난 6조6000억원, 2017~2018년까지는 각각 4.5%, 4.3% 증가한 6조9000억원, 7조2000억원이 게시됐다.

해마다 일 평균 거래액 증가폭이 2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거래소는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부진을 점쳤다.

코스피시장이 2014~2018년에 걸쳐 4조1000억원, 4조2000억원, 4조4000억원, 4조5000억원, 4조6000억원으로 대체로 1000억원씩 늘어날 동안 코스닥시장은 1조9000억원, 2조원, 2조2000억원, 2조4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2배가량 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의 일 평균 거래액은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200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7년 7조원대에서 2008년 6조원대로 내려간 뒤 2009년 7조원대를 회복했다. 이후 2011년 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2년 6조9000억원으로 줄어들며 감소 국면을 이었다.

저성장 장기화와 고령화에 따른 안전지향적 투자성향, 소득 부진으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 등 국내 증시의 구조적 한계가 거래대금 회복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현진기자

금감원, 뉴욕 금융 채용박람회 개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뉴욕 쉐라톤 타임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금융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심각

국내 보험사의 퇴직금 적립액의 상당 부분이 계열사의 '밀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로 인한 적립액수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는 현대라이프생명이 가장 높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10개 보험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삼성생명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의 49.5%인 6조8068억원에 달했다. 이는 다 9개 보험사의 계열사 적립금(2조641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라이프생명이다.

이 회사는 전체 적립금 5196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이 내부거래 물량이었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내부거래 비율은 46.9%로 10개 보험사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2012년(93.9%), 지난해 말(69.1%)보다 계열사 거래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 밖에 삼성화재(34.6%), 흥국생명(27.5%), 동부(26.5%)였 등의 업계의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아기자

8월 국내은행 대출채권 8.6조↑

가계·기업부문 연체율 동반 상승

지난 8월 국내은행들의 기업과 가계부문 연체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거래량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국내은행의 대출 채권도 확대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15조2000억원으로 한달전보다 8조6000억원(0.7%) 증가했다.

이 기간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 지속 등에 따라 69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178조8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난 5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와 적격대출 취급액 증가로 495조8000억원으로 5조원 커졌다.

반면 기업과 가계부문 연체율은 한제히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96%로 전월 말의 0.87% 보다 0.09%p 높아졌다.

이는 신규연체 발생액인 2조1000억원이 정리규모인 8000억원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1.16%로 전월 말 보다 0.13%p 커졌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5%p 상승한 0.71%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신규연체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지난달과 지난해보다 각각 0.16%p, 0.04%p 올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92%(+0.18%p), 부동산 임대업 1.14%(+0.17%p), 선박건조업 4.08%(+0.33%p), 해상운송업 1.57%(+0.25%p) 등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보다 0.03%p 올랐다.

다만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37%로 낮은 수준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07%로 전월말 보다 0.12%p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말 연체율은 한달전보다 상승했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개선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중소기업 신규연체 증가와 일부 취약업종의 연체율 악화가능성을 감안해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alex1@

'큰 손' 요우커를 잡아라

금융권, 중국 은련카드와 업무제휴 통해 마케팅 강화

중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국경절이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됨에 따라 금융권도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고객 유치에 나섰다.

직접적인 특수는 없지만 중국의 은련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환율우대, 외국인 전용 서비스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336만명이다.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중에는 16만명의 요우커가 방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내 외국인 카드 사용액 가운데 절반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큰 손' 왕서방의 마음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업무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BC카드는 중국 은련카드, LF(구 LG패션)와 함께 서울 명동에 은련카드 VIP 라운지를 열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명동의 헤지스 매장 5층에 위치한 은련카드 VIP 라운지는 ▲물품 보관 ▲휴대폰 충전 ▲인터넷 ▲커피·음료 제공부터 관광정보, 백화점·면세점 할인권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BC카드는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은련카드로 헤지스 명동점에서 결제 시 10% 현장할인을 해주며 2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권요성 BC카드 부사장은 "앞으로도 BC카드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한국관광공사,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손잡고 외국인 고객 유치 공동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외환은행에서 최대 50%까지 특별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롯데월드 어드벤처 30% 할인 이용권도 제공된다.

신한은행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찾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환전과 기념주화 구매, 은행업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는 24시간 환전소도 운영된다. 특히 10월 8일까지 인천을 찾은 외국인고객이 환전 시 20% 환율우대와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KB국민은행은 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월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히한기자 slve@metroseoul.co.kr

은행 금리 사상 최저로

정기예금 연 2.3%대

지난 8월 중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 연 2.3%대로 떨어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2.36%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로, 저축성 수신금리의 2.3%대 진입은 처음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6월 2.57%, 7월 2.49% 등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인 정기예금도 7월 2.43%에서 8월 2.35%로 하락, 사상 처음 2.3%대에 진입했다.

정기적금(2.67%→2.57%), 상호부금(2.56%→2.49%) 등의 금리도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기예금의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은 2%대가 95.0%를 차지했고 2% 미만은 4.9%였으며 3%대는 0.1%에 불과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18%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사상 최저다.

가계대출(3.93%→3.76%)은 주택담보대출(3.53%→3.50%)과 소액대출(5.22%→5.08%)을 중심으로 평균 0.17%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4.54%→4.35%)도 0.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8월 1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이 은행 금리에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몇몇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특판 종료 등 특이 요인 때문으로, 전체적인 대출 금리는 하락세였다"며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는 적격대출을 위주로 비교적 저금리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nirvana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

금융위, 보험사 환급금 경쟁 촉진

내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은 더 커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성을 높인 보험 규제를 통해 재무 건전화와 올바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단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아란기자

NH농협, 증권사 거래 전용 외환서비스 NH농협은행은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거래 수요에 부응해 '증권사 전용 외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대우증권 사장 낙하산 배제

이삼규 수석부사장 등 6명 후보 검증 돌입

외부 출신 CEO 리스크가 불거진 KB금융 사태의 여파로 금융권의 수장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이나 코드' 인사가 배제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지난 26일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사장 선임은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받고 면접 등을 거쳐 주주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정하고 11월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당초 기류와 반대로 외부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고 내부·출신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남은 전 김기범 사장의 돌연 사퇴에 이어 유력후보 내정설이 돌았으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추위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삼규 수석부사장과 이영창 전 부사장, 김국용·홍성국·황준호·김성호 부사장 등 6명이다.

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후배 직원들을 아끄는 힘이 있는 인사들이 후보군에 올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책임감이나 충성심 없이 고액 연봉과 성과급만 챙기고 '먹튀' 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내분 끝에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해임되거나 퇴진한 KB금융 사태도 외부 CEO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놓으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은행지주 계열의 공기업 자회사로서 외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던 대우증권 사장직의 이번 선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정기자 nirvana

미래에셋, 파생결합증권 12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8.1% 하이파이브형 ELS 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12종을 다음달 6일 오후 2시까지 총 19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663회 하이파이브 ELS'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하이파이브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8%(6, 12, 18, 24, 30, 36개월) 이상이면 연 8.1%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1%의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김현정기자

국산차, 수입차보다 만족도 떨어져

AS 부문만 우위…품질 가장 좋은 브랜드는 현대차·BMW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입차가 대부분 항목에서 국산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실시한 '2014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와 제품 만족도 모두 수입차 평균은 국산차 평균보다 우위를 나타냈다. 1000점 만점의 고객 만족도 영역 중 판매서비스 만족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81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산차 중에는 르노삼성이 765점으로 선두였다. 제품 만족도에서는 아우디가 669점, 르노삼성이 593점으로 각각 1위를 나타냈다. AS 만족도는 혼다가 831점으로 수입차 1위를, 르노삼성과 한국GM은 816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AS 만족도에서 한국GM은 3년 연속 1위이고, 르노삼성은 3년 만에 공동 1위로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AS 만족도 평균은 국산차 792점, 수입차 773점으로 국산차가 수입차를 앞섰다. 국산차를 20점 이상 앞서던 수입차는 2012년 처음으로 국산차에 역전 당했으며 (9점 차이) 매년 그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이 역전은 국산차의 향상과 수입차의 퇴보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지만, 결정적으로 수입차의 서비스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마케팅인사이트 측은 "유럽차들의 평균은 국산 최하위만 못하고, 내년에는 최상위권에 있는 일본차를 한꺼번에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래 전부터 수입차의 최대 약점은 AS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2011년까지 수입차는 국산차에 앞서 있었다. 2012년부터 수입차 AS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하락을 거듭,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케팅인사이트 측은 "AS는 수입차를 고려하다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수입차의 질주에 제동이 걸린다면 가장 유력한 걸림돌은 단연 A/S"라고 지적했다.

차량에서 체험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나타내는 제품 품질 영역에서는 수입차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이 조사에서 조기품질 문제점 수는 BMW가 1.01, 현대차가 1.41로 각각 1위에 올랐다. 내구품질 문제점 수 역시 BMW가 2.85, 현대차가 3.63으로 업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차(렉서스, 토요타, 혼다 등)의 평균은 1.98건으로 크게 우수했으나, 브랜드별 사례수가 60사례에 미치지 못해 등수 매김에서 제외됐다. 1년 이내 신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 스트레스 경험 수'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73, 한국GM이 2.81로 각각 선두를 나타냈다.

2014년도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주춤하는 듯 보였던 수입차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AS에서의 부진은 커지고 있지만 작년에 있었던 조기품질에서의 역전은 일부 수입 브랜드의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국산차의 품질·고객만족도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여기서 다룬 6개 부문 중 국산차가 1위 또는 2위를 차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판매와 AS 같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만 3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제품품질에서는 3위도 없다. 1~3위 모두 수입차 차지다.

수입차는 AS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국산차 1위를 앞서는 성적을 보였다. 특히 제품 품질 측면에서 보면 제품 만족도, 조기품질 문제점 수, 내구품질 문제점 수의 3개 부문 모두에서 수입차의 평균이 국산차 1위를 적지 않은 차이로 앞서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마케팅인사이트 측은 "국산차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올려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품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차의 제품력이 우수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품이 좋은 곳으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사용자 10만 182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e-메일 응답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마케팅인사이트 측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7월에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성현기자 for sn5@metroseoul.co.kr

中 화웨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

5인치 'X3', 미디어로그 통해 30일 공식 판매

중국 화웨이가 전략 스마트폰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화웨이는 5인치 스마트폰 'X3'를 30일부터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공식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화웨이가 해외에서 선보인 '아너6'를 국내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프리미엄 사양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너6와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직접 설계한 기린(Kirin) 920 옥타코어 프로세서, 2GB 용량의 RAM과 16GB 내장 메모리, 안드로이드 4.4 킷캣 운영체제가 탑재됐다.

또 5인치 풀HD(1920×1080) 터치스크린에 풀HD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5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13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제공한다.

화웨이는 30일부터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 'X3'를 공식 판매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제공

대신 두께 7.6㎜, 무게 135g로 아너6보다 약간 두껍고 무게가 더 나간다. 국내 시장에 맞춰 LTE에드밴스드를 지원하는 점 역시 아너 6와는 다른 점이다.

색상은 사파이어 블랙, 다이아몬드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미정이다.

화웨이는 제품 출시와 함께 전국 애프터서비스(AS)망을 운영하며 점차 서비스 지원 범위와 판매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리버 우(Oliver Wu) 화웨이 단말기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은 "화웨이 X3가 제공하는 뛰어난 성능과 섬세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기자 hfuna0404@

10월 경품은 '훈민정음 황금판'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롯데백화점 10월 정기세일 경품인 훈민정음 서문을 새긴 황금판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된 1명에게는 5억원 상당의 훈민정음 서문 황금판(10.09kg), 2등 3명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훈민정음 황금판(100g) 등이 증정된다. /연합뉴스

구자열 회장 "LS만의 브랜드 창출해야"

"기술 융복합 및 시너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LS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구자열(사진) LS그룹 회장은 29일 열린 'LS T-Fair 2014'에 참석해 "최근 3D프린터, 드론, 사물인터넷 등이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기술로 급부상하고 사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 글로벌 시장은 경쟁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LS T-Fair 2014'는 LS그룹 주력 계열사의 연구개발 보고대회 전시회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째 그룹 차원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다.

올해 전시회는 경기 안양 소재 LS타워에서 29~30일 개최된다.

/김태균기자

KT "고객 혜택 높이고 통신비 낮춘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KT가 대대적인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29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결합 결합상품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서울·경기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가족과 데이터·멤버십 포인트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매월 보너스 혜택을 추가로 주는 '올레 패밀리박스' 앱이 다음달 출시된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모바일 2회선 이상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포인트를 박스에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쓸 수 있다. 또 매달 가족 구성원 수만큼 1인당 데이터 100MB와 포인트 1000점, 가족당 올레 와이파이 이용권도 함께 준다.

KT는 통신 요금 할인은 물론 매년 항공 마일리지까지 주는 '올레 마일 KB국민카드'도 다음달 1일 출시한다. 전월 카드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통신요금을 7000원 할인해주고 LTE 67 이상 요금제 이용 시 추가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년에 최대 5000마일 적립해준다. LTE67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면 제주도 왕복이 가능한 1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KT는 현재 스타벅스, 아웃백 등에 제공하고 있는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등 전국 4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승차 인원이 많은 서울·경기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기가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이밖에 저렴한 요금의 와이브로 장점과 넓은 커버리지의 광대역 LTE 장점을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도 출시한다. 요금제는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10G/20G 2종으로, 각각 월 1만5000원, 월 2만2000원(24개월 약정시, 부가세 별도)이다.

/서지희기자 liv0403@

연말 앞두고 국내 경기 좋아지나

전경련 BSI 6개월 만에 100 돌파
고용·내수·투자·음식 등 개선

국내 경기가 연말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10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100.7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미국 경제의 점진적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과 엔저현상 심화, 민간소비 회복 지연, 대중 수출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지난달까지 BSI 실적치가 6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던 만큼 연말께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BSI가 100 보다 높을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수가 부정 응답 기업 수 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보다 낮을 경우 그 반대를 뜻한다. 즉 100이상이면 "먹고 살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회사가 많다는 얘기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103.3), 투자(100.7), 고용(101.7), 채산성(101.5) 부문은 긍정적으로, 수출(98.3), 자금사정(97.8), 재고(102.8) 부문은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100.4)을 제외한 내수(93.9), 수출(93.9), 투자(97.2), 자금사정(94.6), 재고(106.1), 채산성(93.2)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경공업(100.0)의 경우 음식류(103.2), 섬유·의복과 가죽·신발(100.0), 펄프·종이와 가구(93.8) 등은 호전과 부진 전망이 엇갈렸다.

중화학공업(99.2)은 의료·정밀·전기 기타기계(94.3), 1차금속·금속가공(97.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부진이 예상된다.

비제조업(102.6)의 경우 지식·오락 서비스업(120.0), 출판·기록물 제작(113.3), 운송업(109.4)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아직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외환시장 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저작권 골든벨을 울려라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주최로 열린 '2014 저작권 골든벨'에 참가한 전국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카드섹션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팬택, 사물통신 확대로 위기 탈출

일본 M2M 시장도 진출

팬택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사물통신(이하 M2M · Machine to Machine) 사업을 강화한다.

팬택은 올해 M2M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 현실화되면서 M2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팬택측은 글로벌 기업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경쟁사 대비 높은 생산효율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2년 하반기부터 M2M 시장 진출을 모색한 팬택은 지난해 경비업체 에스원과 경기버스에 제품을 공급하면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에스원에는 무선바 한 보안단말을 공급해 유선망 설치 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버스에는 버스정보체계에 사용된 M2M 단말기인 라우터를 공급해 버스 운행의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G버스 TV'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팬택은 일상 생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 사물인터넷 실용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미 금융·요식업·헬스케어 산업 등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었다. 올해 말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단말기에 M2M 모뎀을 공급해 실시간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내 6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 M2M 시장에도 진출한다. 현재 10여 곳의 일본 공급사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간 공급 규모는 수십만여 대에 달한다. 팬택은 M2M 산업의 선진 시장인 일본에서 선점 효과를 거둔 뒤 장기적으로는 북미와 유럽시장까지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혜진기자 hang@

알뜰폰, 에너지사와 손잡다

헬로모바일, 'E1 요금제' 출시… 연간 최대 43만원 절감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업계 최초 '에너지 요금제'를 선보인다.

CJ헬로비전은 친환경 LPG 전문기업 E1과 제휴를 맺고 '헬로모바일 E1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E1 충전소와 E1 오렌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헬로모바일 E1 요금제'는 헬로모바일 조건없는 유심(USIM) LTE 요금제와 E1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그동안 카드사가 정유회사와 제휴를 맺고 할인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통신사와 에너지사가 직접 손잡고 요금제를 내놓기는 처음이다.

해당 요금제는 USIM 교체만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단말기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약정 없이 기본료 반값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E1 반값 21', 'E1 반값 26', 'E1 반값 31'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KT의 LTE42, 52, 62 요금제와 동일한 양의 음성·문자·데이터를 제공한다.

CJ헬로비전은 E1과 손잡고 '헬로모바일 E1 요금제'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43만4400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J헬로비전 제공

이 요금제에 가입 후 E1 충전소에서 월 2회 이상 가스를 충전하는 고객들은 매달 E1 오렌지 포인트 2100점(최대 24개월)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년에 최대 43만4400원(VAT 포함)의 현금 혜택이 있는 셈이다.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총괄 상무는 "E1과의 제휴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싸고 품질 좋은 알뜰폰의 혜택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통망과 고객층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0409@

"렌터카 궁금증, 뭐든 물어보세요"

kt금호렌터카, 업계 최초 '카카오톡 고객상담' 도입

종합 렌탈회사인 kt렌탈(대표이사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가 신개념 고객상담서비스인 '카카오톡 고객상담'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팅 기능을 활용해 렌터카 이용에 관한 궁금증 등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1:1 상담할 수 있으며 이벤트와 할인혜택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카카오톡 고객상담은 kt금호렌터카의 상담 시스템에 모바일 메신저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 고객센터 상담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톡 고객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kt금호렌터카'를 친구로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kt금호렌터카는 카카오친구 추가 후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CGV 영화예매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t렌탈 마케팅본부장 김연대 상무는 "앞으로도 업계 1위 기업만의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ferrari@

묵혀둔 아파트 잇따라 분양

시장 호조세 힘입어 중단됐던 사업 재개
청약에 앞서 입지·분양가 등 따져봐야

계속된 분양 연기로 눈총을 받던 미운오리 신규 사업장들이 잇달아 분양에 돌입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사업성 하락,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분양 계획을 잡았다 취소하기를 반복했던 곳들이다. 하지만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백조로의 화려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 롯데캐슬'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미아4구역은 지난 2012년 7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가 진행됐지만 2년이 넘도록 분양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이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전격 분양을 결정했다.

신진명 꿈의숲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수요가 없는 불황기에 서둘러 공급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분위기가 좋을 때 쉽게 분양하자는 게 건설사와 조합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대표적인 판자촌 마을로 꼽히는 서초꽃마을5구역도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 꽃마을은 1999년 땅 주인들이 무허가 비닐하우스 300여 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개발이 추진됐던 곳이다. 현재 2구역은 사랑의교회가, 3구역은 연우음병원이 들어선 상태다.

5구역은 대법원의 고층 개발 반대로 건축허가가 늦어진 데다 PF 지급보증을 선 금호산업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서 오는 10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민락2지구 금강펜테리움'도 내달 공급될 예정이다. 금강주택은 2010년 12월 해당 부지를 분양 받았으나 주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4년 가까이 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지구 내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도 201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작업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양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이 연기됐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SK뷰'가 10월로 일정을 잡았다. 또 2009년 분양하려다 경기 침체와 분양가 협상 난항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도 연내 공급된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기회에 미착공 사업장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익숙한 단지이겠지만 입지가 나쁘거나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가격이 비쌀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앞서 입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ss0882@metroseoul.co.kr

위례자이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이 줄을 서고 있다.

분양 골든위크, 청약자 수만명

지난 한 주 전국적으로 19개 사업장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올 가을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 자이' 견본주택에 오픈일을 포함한 지난 3일(26~28일)간 4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견본주택 개관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500~600m씩 줄을 서는가 하면, 오픈 첫날부터 준비한 홍보물이 다 떨어져 급하게 추가 발주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보인 GS건설 위례자이 분양소장은 "신도시 중 가장 선호도 높은 위례신도시에서 입지, 브랜드, 설계특화 3박자가 어우러져 인기가 높다"며 "그동안 위례에서 분양됐던 아파트 중 최고 청약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개관한 '보문파크뷰자이' 역시 3일간 1만여 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성북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1186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데다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았다. 또 45㎡(20평형)의 소형평면과 임대수익평면을 갖춘 덕에 임대사업을 바라는 장년층의 상담도 이어졌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이목을 끈 대우건설 '서초 푸르지오 써밋'과 삼성물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견본주택에도 이 기간 각각 2만5000여 명, 1만5000여 명이 찾았다. 일반분양 가구수가 143가구, 49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KCC건설이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서 오픈한 '전주 송천 KCC스위첸'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7000명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3일간 약 2만5000명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견본주택 밖에서 수백 미터의 줄을 서는 것은 물론이고, 상담석의 빈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외 지난 주말 손님맞이에 나선 '제주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고성 코아루 더파크' 모델하우스도 약 1만2000명, 1만5000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박선옥기자

롯데건설 '가족과 함께 현충원 봉사활동' 롯데건설 임직원 가족으로 이뤄진 봉사단이 국군의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단장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렌탈 인기

외국인 대상 렌탈사업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임대료 수준이 높은 데다 특히 미군의 경우 주택수당 제도가 있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수건설이 K-6 캠프험프리스 메인게이트 약 650m 거리에서 94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평택 브라운스톤 캠프리스'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1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46㎡로 구성됐다.

미군부대 이전 발표 이후 처음 분양하는 렌탈 특화 아파트로 단지 주변에 미군특화 상점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 삼워지구 중 일부가 국제문화특구(가칭 평택 로데오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평택의 이태원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미군의 경우 계급별 주택수당 제도에 따라 월 3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월세 미납 및 공실 등의 위험이 적다. 미군 관련업체 주택관리과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해 주는 등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선이며,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문의 02)553-9000

/박선옥기자

전용 85㎡초과 오피스텔 공급 급감

최근 3~4년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어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공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용 21~40㎡ 면적대의 공급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정부 정책과 주택시장 환경 등에 따라 널뛰기를 반복했다. 오피스텔 관련 주요 규제 중 하나인 바닥난방 허용 여부가 대표적인데 바닥난방 규제는 1988년 도입됐고 정부가 주거기능을 강화하면서 1995년 전면 허용됐다. 2000년 초반 집값이 급등하면서 2004년 다시 금지됐고 2년 뒤인 2006년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재허용했다. 이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09년 바닥난방을 85㎡ 이하까지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2002년 11만7528실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 바닥난방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2009년에는 1만실 미만으로 급감했다. 반면 2009년 바닥난방 허용이 전용 85㎡ 이하로 추가로 확대되고 전세난이 가중된 데다 2012년 준주택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물량이 다시 늘었다. 2010년 1만3085실, 2011년 3만3569실, 2012년 4만7087실, 2013년 3만6829실, 2014년 3만3592실 등 대규모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3000여 실이 분양될 정도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소형 면적에 집중된 탓인데 올해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22실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과 2016년 입주예정 물량도 비슷한 수준이다.

전용 85㎡ 초과 물량의 공급 감소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주택수요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 컸다. 정부의 오피스텔 관련 제도 변화 또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두탁기자 kim@

'수산 캔제품·살충제'…불황 속에서도 성장

닐슨코리아, 2014년 상반기 FMCG 트렌드 리포트 발간
잡곡밥·저염식 캔햄·유기농 생리대 등 친환경 주목

장기간 계속되는 국내 경제 불황속에 소비재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음료 부문(0.1%)에 비해 생활용품 부문(2%)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대표 신은희)가 29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재 시장이 역성장 했다.

식음료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불황에 강한 편의가공식 시장(+0.4%) 이 외에 주류(+4.2%)와 음료(+1.7%) 시장만이 전년 동기보다 판매가 나아졌다.

주류의 경우 전년보다 6.3%의 판매액 성장률을 보인 맥주 시장이 이를 견인했고, 세부적으로 수입 맥주가 27.6%나 늘었다.

음료는 생수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3.2%의 두 자리 수 판매액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소비재 전체 시장에서 수산캔 살충제 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탄산수의 판매액 성장률은 94.8%에 달했다.

편의가공군 제품은 전년 동기보다 0.4% 판매액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산캔 시장은 전체 소비재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19.3%의 판매액 성장률을 보였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연어캔 시장이 전년 상반기 약 7억7000만원에서 올해 약 15억원 규모로 커졌다.

또 잡곡밥의 인기에 힘입어 전체 즉석밥 시장에서 잡곡밥 시장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3.8%를 기록했다. 일반 캔햄보다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저염식 캔햄도 전체 캔햄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이 기간 0.9% 증가한 14.4%를 기록했다.

두부류는 일반 수입 두부의 판매량이 이 기간 4.5% 성장했지만 유기농 두부(국산·수입 포함)는 10.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콩나물 역시 수입산 판매량이 21.2% 성장한 반면, 국산 콩나물이 8.2%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소비자들이 기본에 충실한 저가 제품을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것은 소용량 제품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용량 제품의 성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5인분 이상 냉장면 (떡류 면류 포함) 제품은 1.6% 성장했지만 4인분 이하 제품은 오히려 0.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냉동밥 시장에서 400g 이상 제품의 판매량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4.6% 포인트 증가한 68.3%를 기록했고, 400g 미만 제품의 판매량 비중은 24.6% 포인트 감소한 31.7%를 나타냈다.

비식품 부문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살충제 시장이 전년 동기보다 13.5% 성장했다.

베이킹소다·식초 등 친환경 콘셉트 생활용품의 물량 점유율이 주방세제 부문에서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4%로 크게 늘었다.

세탁세제 시장에서도 5.8%에서 7.3%로 성장했다. 식초 성분을 함유한 섬유유연제도 1.4% 성장했다. 생리대 제품도 친환경 제품 선호 추세가 뚜렷해져 올해 상반기 판매 수량 기준으로 전체 생리대 시장이 0.6% 성장한 데 비해 유기농 생리대 제품의 성장률은 무려 52%에 달했다.

/정영일기자 prno@metroseoul.co.kr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40% 할인 판매

환절기 건강지키기 이벤트 실시
돈가스·쇠고기육포등 크게 내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고객들을 위해 '환절기 건강지키기' 이벤트를 벌인다.

오는 30일까지 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생체 리듬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곰탕이 제격이다.

방부제 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또 100% 국내산 돼지 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kg·3만2400원)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10봉·3만6000원)도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10월 19일까지 전 매장에서는 기존 멤버십 회원이 구이메뉴(정식류·배달메뉴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 행사기간 신규가입 회원에게는 포인트(1000점) 무료 적립 및 냉면상품권(1매)을 증정한다.

와인(카르멘 콜렉 메롯) 1병을 시키면 결제 시 와인(카르멘 콜렉 카베르네쇼비뇽) 1병을 무료로 증정하며, 행핑·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정정한우떡갈비 측입자판돈너비아니 통등심돈가스·모짜렐라돈가스도 2세트를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추가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원두가루 동결 건조 커피 롯데네슬레코리아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골드락' 기술로 새로워진 '네스카페 수프리모 골드락'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롯데푸드와 네슬레코리아 합작 이후 선보이는 첫 신제품으로 커피원레에 미세원두가루를 동결 건조시키는 네스카페만의 독자적인 '골드락(Gold Lock)' 기술로 완성됐다. 깊은 원두 맛과 향이 특징이다.

/롯데네슬레코리아 제공

음료서 화장품까지…'자몽'이 대세

비타민C 풍부, 저칼로리 지방 연소 성분도 함유

식·음료는 물론 화장품에까지 '자몽 바람'이 일고 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낮은 칼로리(100g 당 30㎉)에 몸 안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나린진(Naringin)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줘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세 과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4월 게토레이의 신제품 '화이트 스플래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스포츠음료로 자몽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장점이다. 러닝, 요가 등 게인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출시 5개월 만에 약 1600만 개(240㎖ 기준)가 판매됐다고 한다.

같은 회사의 '데일리C 자몽워터'는 상큼한 자몽의 풍미와 함께 자몽 12개 분량의 비타민C 1000㎎이 함유됐다. 퀵크팔 라벨에 신선한 자몽 이미지를 넣어 눈으로도 자몽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 보습과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다.

화장품 업계도 자몽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노(Aveeno)는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에너자이징 로션'을 선보였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자몽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에 싱그러운 활력을 주고, 기분 좋은 향과 함께 액티브 내추럴 콜로이달 오트밀과 쉐어버터가 건조한 피부를 감싸 보습 효과를 지속시켜준다.

/정영일기자

'12월 이케아 공습'…온라인마켓 긴장

토종 가구업계 위기 돌파구 모색
11번가 국내 가구 브랜드와 협업

오는 12월 글로벌 브랜드 '이케아'가 한국에 첫 매장을 연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유통망이 토종 가구 업체들의 돌파구로 주목 받고 있다.

11번가는 동서 에몬스 장인 등 국내 유명 가구 브랜드와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협업하는 '가구 특별 기획전'을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 가을 혼수와 이사철을 맞아 동서가구와 함께 기획하고 구성한 가구를 모은 '동서가구 웨딩페어' 기획전을 10월 15일까지 연다. 공간에 따라 확장·축소가 가능한 '일레븐 무빙1600 거실장'은 12만5000원, 고무나무 원목과 대리석으로 제작한

'리빙스 대리석 4인용 식탁세트'는 18만9900원, '평상형 모던 PU가죽 침대(퀸 사이즈 매트리스 포함)'는 29만9000원이다.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 할인 쿠폰을 한정으로 제공한다. 또 동서가구를 단골 미니몰로 등록 시 추가 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몰 판매 노하우를 적극 전수하고 있다. 6월부터 동서 에몬스 장인가구를 자체로 육성 파트너로 선정해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이지은 가구 담당 MD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구 트렌드를 분석 국내 가구업체에게 성공 판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측은 앞서 진행한 가구업계와 협업에서 좋은 실적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 진행한 '동서가구 단독 기획전'의 경우 9월 1일부터 27일까지 매출이 6월(6월 1일~6월 27일) 대비 217% 증가했다. 온라인몰 단독으로 출시한 '컨셉트 클래식 퀸 침대'는 완판을 기록했다. '에몬스가구 기획전'도 시작된 7월보다 9월 매출이 135% 상승했고, 6월 입점한 장인가구는 9월 매출이 150% 뛰었다.

/김수정기자 ksj0216@

건조한 가을 '오일 보습법'

가을철 푸석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줄 구원투수로 고보습 오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식물성 성분을 함유해 기존 오일의 단점이었던 무거운 느낌을 개선, 지성피부까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오일은 활용법에 따라 얼굴뿐 아니라 헤어까지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일 활용 팁을 소개했다.

세안 후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하면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 세수를 한 뒤 오일을 두 세 방울 손바닥에 덜어 얼굴을 지긋이 감싸면 되는데, 이때 스팀타월을 얼굴에 덮어주면 흡수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20 리얼 스퀴즈 앰플'(사진 왼쪽)은 모로코 아르간 열매 320개를 그대로 짜서 한 병에 담은 고농축 앰플이다. 95%의 천연 유래 식물성 오일이 수분 손실을 막고 영양을 공급해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멜비타 '오가닉 골드 오일'(오른쪽)은 스프레이 타입의 드라이 오일로 오메가 3, 6, 9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보습효과가 탁월하다. 얼굴·머리카락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화장도 들뜨기 쉽다.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식물성 오일 성분이 함유된 메이크업 제품을 쓰는 게 좋다.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에 페이셜 오일을 한 두 방울 섞어 사용해도 좋다. 화장 후 들뜬 피부에도 오일을 살짝 묻혀 눌러주면 금세 진정된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머리카락도 메마른다. 평소 샴푸할 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감으면 찰랑찰랑 윤기 나는 모발로 가꿀 수 있다. 헤어 컨디셔너와 섞으면 헤어 마스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서지영기자

추억의 '복주머니' 백 부활

복고 열풍 속 모던함 돋보이는 '버킷백' 유행

올 여름 불었던 복고 패션 열풍이 가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와이드 팬츠·꽃무늬 원피스 등 의류는 물론 가방까지 레트로풍으로 물들고 있다.

왼쪽부터 칼린 '벳줄', 빈폴 액세서리 '럭키 숄더백', 힐리앤서스 '레슬리'

여성 잡화에서는 '버킷백'이 단연 인기다. 1990년대 여대생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이 가방은 복주머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복주머니 백'으로 불린다. 최근 국내 패션브랜드에서도 빈티지한 멋에 모던함을 더한 신상 버킷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과거 버킷백이 브랜드 로고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로고를 찾아볼 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뉴욕 감성의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 칼린이 선보인 버킷백 '벳줄'은 단순한 디자인에 다크 그레이와 블루, 브라운과 코랄 등 투톤 컬러로 도시적인 감성을 담아냈다. 기존 버킷백의 최대 단점인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잡아주는 디테일을 적용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빈폴액세서리는 브랜드 모델인 수지의 이름을 애칭으로 붙인 제품으로 버킷백 열풍에 합류했다. '수지백'이라고 불리는 '럭키 숄더백'은 부드러운 사각 형태와 가죽 소재가 돋보이며 와인·브라운·블랙 등 톤 다운된 컬러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지난 8월 수지의 화보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국내 가방 브랜드 힐리앤서스는 자수 모양의 입체적인 가죽 '엠브로이더리'를 시그니처 패턴으로 한 버킷백 '레슬리'를 내놨다.

레슬리 라인은 1960년대 패션 아이콘이었던 모델 트위기(Twiggy)로부터 영감을 받아 복고 분위기를 재현했다. 가방 양쪽에 골드 컬러 기둥장식을 달아 스타일리시함을 더했다. 최근 가을 분위기를 더한 블랙·메탈릭한 실버 등 모노톤 컬러의 제품을 출시했다.

/박제성기자 p.s@metroseoul.co.kr

"데님 제품에 스타일 입혀드려요" 갤러리아명품관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웨스트 4층 신장 팝업스토어에서 패치워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덴함의 CEO 제이슨 덴함이 직접 갤러리아명품관에서 개인 데님제품(청바지·청자켓)을 가져온 고객들에게 '덴함 X 갤러리아'가 새겨진 패치를 비롯해 다양한 무늬의 패치를 직접 붙여줬다. 2008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데님 브랜드 덴함은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문화공간 '파르나스 몰' 오픈

파르나스호텔, 업계 최초 프리미엄 캐주얼 몰

서울 삼성동에 직장인을 위한 감각적인 종합 문화공간이 탄생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은 다음 달 9일 '파르나스몰(Parnas Mall)'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파르나스몰은 호텔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캐주얼몰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지하 1층에 총 7600㎡ 규모로 자리 잡았다.

문화와 쇼핑은 물론 식도락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픈 단계에는 약 5300㎡의 면적에 19개의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17개의 식음업장이 들어선다.

특히 프랑스 스타셰프 베이커리 살 곤트란 쉐리에의 국내 1호점이 문을 열며 전 세계 식음 브랜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호텔은 2016년 9월까지 파르나스타워와 함께 나머지 공간의 오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파르나스몰 디자인 위크'에서는 ▲그래픽 ▲제품 ▲패션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8명의 디자이너가 입점 브랜드와 협업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르나스몰을 총괄하는 윤예강 팀장은 "파르나스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몰이라는 공간에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종합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얼굴 빨개짐' 원인부터 찾자!

안면 홍조·주사·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나타나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안면 홍조 외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질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얼굴이 빨개지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면 홍조다. 다른 사람에 비해 얼굴이 오랜 시간 심하게 빨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며 특히 폐경기를 겪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난다. 원인을 섞어나 내분비질환, 심리적인 변화 등이 주원인으로 호르몬·약물·레이저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안면 홍조와 유사한 질환 중 하나는 얼굴이 항상 술을 마신 듯 빨갛고 쉽게 달아오르면서 화끈거리는 증상을 보이는 주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딸기코'가 이 질환의 주요 증상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 ▲혈관의 취약성 ▲호르몬 ▲세균 감염 ▲진드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 번 늘어난 혈관이 원래대로 잘 오므라들지 않고 혈관 확장 상태가 오래되면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만약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려움증과 심한 각질이 동반되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야 한다. 이 질환은 얼굴과 목 주위 등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습진 질환으로 피부염이 심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돼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난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김방순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원장은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각 질환 별로 증상이나 치료법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며 음주나 흡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환이 심해지면 다른 혈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누구나 즐기는 '트레킹학교' 주목

12월까지 전국에서 '1일 교육' 실시

국민 모두가 즐기는 트레킹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www.sportal-edu.or.kr)가 화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현재 '신명나는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트레킹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65%가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는 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산행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트레킹은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등산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산행에서 시작되는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트레킹을 하지 않으면 관절 및 근육 등 몸에 무리가 생겨 부상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트레킹학교가 산행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자연을 지나치고 목표만을 위해 오르는 산행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트레킹법을 권장하고 있다.

트레킹학교는 트레킹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까지 매 주말 1일 트레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봉산과 아차산, 문경새재 등 서울 10개소와 지방 5개소에서 교육을 하며 교육을 맡은 전문 강사님은 등산 관련 자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은 트레킹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장비 사용법과 호흡, 보행법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전 체험을 전수한다. 문의: 02)2272-2744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통업계, '캠핑족' 공략

관련 용품 매출 증가

본격적인 단풍 여행철을 맞아 등산의류 등 캠핑·등산 용품 매출이 늘고 있다.

29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등산·캠핑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35% 늘었다. 특히 등산의류(80%)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등산화·트레킹화(50%)와 텐트·타프(20%) 판매도 신장됐다.

이에 유통 업계는 관련 용품 기획전을 여는 등의 신제품을 출시해 야외활동 계획 중인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옥션은 내달 2일까지 인기 등산·캠핑용품을 최대 52% 할인하는 '옥션 슈퍼위크 가을 캠핑특집' 행사를 실시한다.

30일에는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살레와의 여성아웃도어 팬츠를 9900원에 300벌 한정으로 판매하며, 1일에는 주말 캠핑족을 위해 엑스피크의 키즈 난방텐트도 선보인다. 2일에는 산악용 자전거 MTB 자전거 시드니 26인치를 50% 할인한다.

또 마리오아울렛은 20여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을맞이 아웃도어 대전'을 10월 2일까지 연다.

생활용품 업체인 PN풍년이 최근 출시한 '캠핑 스테인리스 코펠&워머 세트'는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해주는 다기능 팟 워머와 함께 냄비 프라이팬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분리형 착탈식 핸들을 추가 구성한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10년 뒤 우주여행 '꿈이 현실로'

스카이스캐너, '2024 미래여행' 보고서

10년 후면 우주에서 연인과 함께 해 뜨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10년 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2024 미래여행(2024 Future of Travel)-여행지와 호텔의 미래'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0년 뒤인 2024년에는 지구 궤도여행과 해저 호텔 체험이 좀 더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민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간 우주관광 기업 월드 뷰 엔터프라이즈는 2016년부터 여행객들을 지구 표면 위 30km 높이까지 실어나를 예정이다. 우주여행 사업체인 버진 갤럭틱은 대기권 도약 기술을 상업 항공에 적용해 2시간30분 만에 런던에서 시드니로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 2015년 개장하는 두바이의 워터 디스커스 호텔은 해수면 9m 아래에 수족관과 같은 창문이 있는 21개의 스위트룸을 설계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10년 뒤 P2P형(사용자 간 직접 연결) 여행이 전 세계 여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에어비앤비가 선보이고 있는 홈스와핑 형태 여행의 콘셉트가 보다 확장돼 숙박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식사 등도 선택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P2P형 여행에 대처하기 위해 10년 뒤 호텔업계는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행의 동기 자체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면서 색다른 체험이 가장 강력한 여행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인 여행객이 급성장하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앙골라 또는 중동의 레바논과 남아시아의 부탄 등이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나 멸종 동물의 증가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최후의 여행'이 여행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황재용기자

이화의료원, '의료경영 고위과정' 개강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최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제1기 이화 의료경영 고위과정 입학식을 열고 12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의료원 인재개발센터와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병원 경영과 마케팅 등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의료 전문가와 리더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 입학식에 이어 기념 특강으로 '대학종합병원의 경영혁신-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권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이번 교육이 이화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이화인재개발센터를 최근 개설하고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산행의 계절' 도와드려요

아웃도어업계 다양한 이벤트

아웃도어업계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을 맞아 소비자 대상 '산행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이더는 10월 18일 용문산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악산·조계산·천관산 등 가을 명산을 찾아갈 예정이다. 용문산과 치악산은 서울에서 출발하며 조계산은 부산, 천관산은 광주에서 각각 출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10월 12일까지 아이더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 한 후 스크랩 URL과 본인의 이름·나이·휴대전화 번호, 원하는 산행 일정과 지원 동기·동반 인원 수를 비공개 댓글로 남기면 된다.

아이더는 당첨자 전원에게 아이더 산행 가이드의 자랑 서비스는 물론 소정의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한다.

라푸마는 다음 달 11일 '백두대간 대종주 시즌2' 8구간 종주를 진행한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E

한결같은 편안함으로…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온 차태현

차태현(38)이 출연하는 영화라면 한 가지 관람은 믿고 볼 수 있다. 바로 '편안함'이다. 그의 연기는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그는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감정을 전달한다. 엉뚱하고 독특한 캐릭터라도 그를 만나면 바로 이웃에 사는 친근한 인물처럼 다가오는 이유다.

2년 만의 스크린 컴백작인 '슬로우 비디오'(감독 김영탁, 10월2일 개봉)에서 차태현은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연기했다. 이름마저도 독이한 여장부다. 찰나의 순간까지 포착할 수 있는 동체시력을 지닌 여장부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바라본다. 영화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과 벽을 쌓고 지냈던 여장부가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담아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주변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영탁 감독만의 남다른 상상력을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차태현이 '슬로우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헬로우 고스트'로 김영탁 감독과 한 차례 작업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영탁 감독의 감성과 잘 맞아요. '헬로우 고스트'를 하면서 감독님이 과잉되고 튀는 것보다 담백하고 건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좋아함을 알게 됐거든요. 처음 시나리오는 완성된 영화보다 더 독특했어요. 편집 과정을 거치고 내레이션이 들어가면서 보다 친절한 영화가 됐죠. 김영탁 감독의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요(웃음)."

차태현은 '슬로우 비디오'를 코미디가 아닌 멜로라고 생각하며 촬영에 임했다. 여장부가 자신의 첫사랑을 닮은 수미(남상미)를 만나 동화 같은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스토리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연기에서도 기존의 코믹한 모습과 거리를 뒀다. 오달수·고창석·김강현·진경 등 조연진이 크고 작은 웃음을 만들어낼 때 차태현은 선글라스를 쓰고 이들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다.

대사도 많지 않고 눈도 가려야 하는 만큼 감정 표현에 대한 고민도 컸다. 수미가 여장부의 선글라스를 벗기는 신이 그랬다.

동체시력 지닌 독특한 캐릭터 변신
기존 코믹함 벗고 다른 패턴의 연기 시도
차기작 '엽기적인 그녀2' "견우 다시 보고 싶어"

"관객들이 여장부의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시나리오에 '수미가 여장부의 선글라스를 벗겼을 때 순수한 눈이 보인다'고 적혀 있는데 이 '순수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연기했는데, 그 장면이 완성된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저도 놀랐더라고요."

차태현은 '슬로우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연기의 폭이 조금은 넓어질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 코미디에서는 10명 중 8명을 웃길 수 있는 대중적인 코드의 연기를 펼쳤다면 '슬로우 비디오'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웃을 수 있는 다른 패턴의 연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증이 크다.

하지만 흥행 기대와는 별개로 완성된 영화에는 만족한다. "영화는 감독님의 색깔이 묻어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차태현에게 '슬로우 비디오'는 김영탁 감독의 색깔이 충분히 잘 담긴 작품이기 때문이다. 차기작으로 '엽기적인 그녀'의 속편 '엽기적인 두 번째 그녀'를 선택한 것도 '품행제로'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준 조근식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유가 크다. "조근식 감독님의 '품행제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엽기적인 두 번째 그녀'도 조근식 감독님 스타일의 연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저와 가장 닮은 견우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차태현은 어떤 역할이든 '차태현화(化)'하는 자신의 연기의 장단점을 명확히 안다. 장점은 자연스럽다는 것, 단점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의 연기는 그가 좋아한다는 송강호·하정우·유승범의 연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모습일지라도 늘 한결 같은 편안함으로 관객 곁에 머무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차태현표 영화'를 관객들이 기다리는 이유다.

"관객들은 차태현을 보러 가는 것보다 '차태현표 영화를 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많이 공감했어요. 비슷한 캐릭터를 해도 관객들이 좋아해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고요. 제 영화를 보고 따뜻하거나 한바지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여운이 남는 걸 바라는 거겠죠."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미란기(이로드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은지

연기돌 '엇갈린' 중간 성적표

'애매' 크리스탈·'호평' 박형식… '어색' 엘·은정

아이돌의 연기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tvN '감들어' 이준과 SBS '괜찮아 사랑이야' 디오(도경수)가 연기돌(연기하는 아이돌)의 편견을 깨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기돌에 대해선 "인기에 편승해 주연을 꿰찬다", "연기가 겉돈다"는 날선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재 에프엑스의 크리스탈(정수정)과 인피니트의 엘(김명수)은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은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티아라의 은정(함은정)은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에 출연 중이다. 네 연기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크리스탈은 첫 주연 작 '내겐…'에서 무난한 연기를 하고 있다. 생활은 고달프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은 지키며 살아가는 윤세나 역을 적절하게 소화했다. 그러나 캐릭터를 잘 만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세나의 씩씩하고 당돌한 성격이 이는과 무대에서 보여준 크리스탈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크리스탈은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2011), SBS '상속자들'(2013)에서도 통통 튀는 가벼운 캐릭터를 소화한 바 있다. 방영 초반이지만 크리스탈이 윤세나 역을 얼마나 깊이 있게 표현하느냐가 배우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형식은 '가족끼리…'에서 배우 못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삼 남매 중 가장 무능력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최고인 막내 차달봉을 연기 중이다. 막내다운 철없는 모습은 물론 청년 백수로 뭣맛하기 힘든 차달봉의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박형식은 KBS2 드라마 스페셜 '시리우스'(2013),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에서 정점한 배우들과 뒤지지 않는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SBS '상속자들',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삼총사'를 통해 극의 감초와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

혹평 받는 연기돌도 있다. 엘은 '내겐…'에서 국내 최고 아이돌 무한동력 범버의 시우 역을 맡았다. 엘은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2012), SBS '주군의 태양'(2013), MBC '엄마의 정원'(2014)에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 했다. 그러나 '내겐…' 속 국어책을 읽는듯한 말투와 한결같은 표정은 그의 경력과 잘 생긴 외모를 의미없게 한다는 혹평이다.

은정도 '끝없는 사랑'에서 캐릭터 분석 실패 등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극 투로 독백하듯 처리되는 대사는 대기업 회장 딸인 채조애의 당당함과 거리가 있다. 또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징 다른 배우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기돌은 "부족하지만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드라마는 부족한 실력을 다듬는 연습장이 아니라 완성된 콘텐츠이야 한다"며 "연기하는 아이돌은 역할 비중을 떠나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로이킴 내달 8일 '홈' 발매

정규 2집… 가을 정취 담은 힐링 포크송

가수 로이킴(사진)이 다음달 8일 정규 2집 '홈'으로 약 1년 4개월만에 컴백한다.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은 "로이킴의 정규 2집 '홈'의 음원이 10월 8일 0시로 확정됐다"며 "타이틀곡은 앨범명과 동명의 '홈'으로 진한 감동과 위로를 담은 감성 포크송"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앨범의 프로듀싱은 로이킴의 정규 1집 '러브 러브 러브' 를 작업했던 정지찬이 다시 한 번 맡았다. 또 국내 최고 기타 세션 함춘호, 미국 CCM계의 유명 드러머와 베이시스트인 댄 니드햄과 게리런, 본 조비·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앨범에 참여한 퍼커션 연주자 에릭 다큰 등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도 참여했다.

스트링 편곡은 김동률·윤상·박효신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앨범에 참여한 바 있는 박인영 음악감독이 진행했다. 스트링 녹음은 그래미 어워드 3회 수상에 빛나는 엔지니어 마크 우셀리가 맡았다.

로이킴은 이번 컴백과 함께 다음달 25~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동안 대구·대전·부산·창원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 '2014 로이킴 라이브 투어 홈'을 개최한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이민호 + 팬 '프로미즈' 기부

아프리카 우물파기 동참

배우 이민호(사진)가 프로미즈(PMZ)와 함께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업을 위한 채리티 워터에 5만 달러(약 5200만원)를 기부했다.

채리티 워터는 깨끗한 식수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 비영리 자선단체다. 이에 참여한 프로미즈는 이민호가 출범시킨 신개념 기부 플랫폼이다. '약속(Promise)', '이민호(Lee Min Ho)', 이민호의 팬클럽 '미노즈(MINOZ)'의 합성어로 '이민호와 팬의 사랑을 모아 더 큰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다.

이민호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하고 또 깊은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자 오랜 기간 프로미즈를 준비했다.

프로미즈는 매년 기부 주제를 선정해 그에 맞는 나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의 첫 번째 테마는 '물'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선정됐다. 사이트를 통해선 10만 노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사이트 가입자 1명에 100원씩 기부되는 방식으로 비된 수만큼 투명하게 기부된다.

프로미즈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6월 출범한 프로미즈 사이트를 통해 1차 모금액이 마련됐다"며 "팬의 정성으로 조성된 기금은 해당 단체로 전달돼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 우물파기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서태지 내달 20일 9집 발매

2일 아이유와 협업곡 선 공개… 18일 컴백 공연

가수 서태지(사진)가 다음달 20일 정규 9집 '콰이어트 나이트'를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2009년 8집 '서태지 에잇스 아토모스' 이후 약 5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서태지 측은 "그동안 늘 시도해 온 '혁신'이라는 코드는 유지하되 감성이 더해진 대중 친화적인 곡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태지는 음반 발매에 앞서 가수 아이유와 협업한 음원을 다음달 2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태지가 온라인을 통해 선공개곡을 발표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컴백 공연 '크리스 말로윈'은 음반 발매 이틀 전인 다음달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서태지는 '콰이어트 나이트'는 물론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너에게', '하여가', '컴백홈', '교실이데아' 등 히트곡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또 이번 공연에선 래퍼 바스코와 스윙스가 서태지와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서태지는 공식 활동에 앞서 KBS2 '해피투게더3'로 대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하은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호연
10월 27일(월) 저녁 8시 tvN 방송 * 매주 월~목 방송

슬로우 비디오 / 우리는 형제입니다 / 나의 사랑 나의 신부 / 레드카펫

가을 한국영화 '풍년'… 8편 동시 개봉

다양한 장르·이야기 본연의 재미 추구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국영화가 10월 극장가를 다시 찾는다. 장르와 주제까지 다양한 8편의 작품이 한 달 동안 개봉을 앞두고 있다. 화려함 대신 이야기 본연의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들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족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코미디다.

'슬로우 비디오'(2일 개봉)는 차태현의 2년 만의 스크린 컴백작이다. '헬로우 고스트'의 김영탁 감독과 차태현이 재회한 작품으로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동체시력을 지닌 주인공이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차태현의 편안한 매력, 그리고 오달수·남상미·김강현 등의 연기 앙상블로 웃음과 감동을 담았다.

'우리는 형제입니다'(23일 개봉)는 장진 감독이 오랜만에 자신의 장기인 코미디로 돌아온 작품이다. 30년 만에 목사와 박수무당으로 재회한 형제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그 동안 센 역할을 주로 연기했던 조진웅, 김성균이 극중 형제를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도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8일 개봉)는 이명세 감독이 연출하고 박중훈, 고 최진실이 주연한 동명의 1991년도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조정석, 신민아가 실제 신혼부부를 방불케 하는 연기 호흡을 선보였다. 세월이 지나도 공감가는 결혼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레드카펫'(23일 개봉)은 에로영화 전문 감독과 아역 배우 출신 톱스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윤계상과 고준희가 주연을 맡아 티격태격 로맨스를 펼쳤다. 오정세, 조달환, 2PM 황찬성 등 조연 배우가 감초 같은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 관객을 위한 치정 멜로와 스릴러도 개봉을 준비 중이다.

'마담 뺑덕'(2일 개봉)은 효의 고전인 '심청전'을 욕망과 집착의 이야기로 변주한 작품이다. 정우성, 이솜이 주연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맨홀'(8일 개봉)은 하수구에 숨어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마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정경호가 기존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변신에 도전했다. 정유미, 김새론이 살인마의 위협을 받는 자매로 출연한다.

색다른 이야기를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실화 바탕의 드라마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제보자'(2일 개봉)는 지난 200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제 줄기세포 사건을 영화화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넘치는 연출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나의 독재자'(10월 개봉)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의 대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박해일, 설경구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마담 뺑덕 / 맨홀 / 제보자 / 나의 독재자

CGV·메가박스 10월 맞이 이벤트

'한글대첩' '칸 광고제 수상작 상영' 진행

극장가는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가을맞이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CJ CGV는 다음달 9일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확산시키기 위한 '보이시오 한글고수 즐기시오 한글대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우리말 가꾸기'와 '우리말 겨루기'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리말 가꾸기'는 외국영화 한글 제목 짓기 백일장이다. 제주도 2인 항공권, 산들구름 3개월 이용권, 비른 에오지와 비른 펜 세트, 영화 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우리말 겨루기'는 주어진 초성으로 영화 제목을 맞히는 퀴즈다. 1단계부터 5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1일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1등에게는 제주도 2인 왕복 항공권을, 2등 50명에게는 영화관람권 4매를 증정한다. 두 이벤트는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CG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메가박스는 다음달 3~10일 2014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상영회를 개최한다. 2014 칸 국제광고제 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올해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배우 장 클로드 반담이 출연한 볼보 트럭의 '장대한 스플릿', 독특한 크리에이티브로 유명한 영국 백화점 하비 니콜스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미안, 나를 위해 샀어' 등을 만날 수 있다. 메가박스 코엑스와 신촌에서 1일 5회 상영된다.

또한 메가박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칸 국제광고제 서울 페스티벌 프리패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장병호기자

유지태 영화 최고 악당 16위에

해외영화 웹진 선정 '올드보이'로 이름 올려

배우 유지태(사진)가 '올드보이'로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유명 해외 영화 웹진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 30명'에서 유지태는 '올드보이'로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순위 내에서는 한국 배우는 물론 아시아 배우로서도 유일하다.

최고의 악당 순위 1위는 '다크 나이트'의 히스 레저가 차지했다. '양들의 침묵'의 안소니 홉킨스, '샤이닝'의 잭 니콜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고쉬, '세븐'의 케빈 스페이시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유지태는 '올드보이'에서 부드러운 외모와는 상반된 냉혈함과 분노를 지닌 캐릭터 이우진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는 "유지태는 복수에 사로잡힌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했다. 그의 복수의 이유가 일부 관객들에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복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으로 간다"며 "이우진은 개인적인 비극에서 분노와 복수심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장 냉혈하고 잔혹한 킬러"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지태 소속사 측은 "정말 최고의 영화와 캐릭터들과 함께 유지태를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연기와 작품으로 국내외 영화 관객들을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지태는 신작 '더 테너-리리코 스핀토'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성악가 배재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상하이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장병호기자

한국 여자 축구, 북한에 2-1 '역전패'

결승행 좌절 · 베트남과 내달 1일 동메달 결정전 치러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9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4강전에서 북한에 1-2로 역전패했다. 윤 감독은 지메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과 유영아(현대제철)를 투톱으로 세우는 4-4-2 전술 대형을 펼쳤다.

좌우 날개엔 정설빈 전가을(이상 현대제철)이 자리했다. 권하늘(부산 상무) 심서연(고양대교)이 각각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진했다. 좌우 풀백은 조소현 김혜리, 센터백은 김도연 임선주가 맡았으며 골문은 김정미(이상 현대제철)가 지켰다.

선제골은 한국에서 나왔다. 한국은 전반 11분 정설빈이 페널티지역 중앙 외곽에서 얻은 프리킥을 오른발 무회전 킥으로 직접 슈팅했다. 공은 골키퍼의 손 앞에서 떨어지며 원바운드로 오른쪽 골망에 꽂혔다. 1-0으로 뒤져진 북한은 무서운 기세로 추격에 나섰다.

전반 20분 위정심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23분엔 전명화의 페널티지역 슈팅이 한국 골대를 강타했다. 결국 북한은 전반 35분 위정심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리예경이 슬라이딩해 골로 연결시켰다.

전반을 1-1로 마친 북한은 후반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북한은 역전골이 나오지 않자 후반 7분 간판 골잡이 허은별을 김윤미와 교체 투입했다. 한국 역시 빠른 역습을 펼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후반 17분 유영아가 전가을의 크로스를 받아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볼이 떠올라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2분 뒤 지소연이 전가을의 브라질을 헤딩슛했으나 북한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43분 경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무렵 지소연이 페널티아크 근처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왼쪽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왔다. 결국 경기 종료 직전 센터백 임선주의 헤딩 백패스가 가로채이면서 북한의 허은별에게 역전골을 허용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내달 1일 오후 5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베트남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북한은 베트남을 꺾고 먼저 결승에 진출한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게 됐다.

/김재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29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4강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지소연(10)이 북한 김윤주를 상대로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재의 금메달 구상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뒤늦게 선수촌에 합류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29일 인천 서운고에서 첫 훈련을 했다. 이따금 휴식을 취하기도 한 그는 사자 자세 등 컨디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손연재는 다음달 1일 개인 종합 예선, 2일 결승을 치른다. /연합뉴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30일(화)

- **육상**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 10종 경기 등(10시)
- **볼링** 안양호계체육관 — 남녀 5인조(9시)
- **복싱** 선학체육관 — 여자 -51㎏ 준결승 등(14시)
- **사이클** 영종백운산MTB코스 — 남자 MTB 결승 등(10시)
- **축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문학경기장 — 남자 4강전 북한-이라크/한국-태국(20시)
- **핸드볼** 선학핸드볼 경기장 — 여자 순위결정전(16시)
- **하키** 선학하키 경기장 — 남자 준결승 한국-인도(16시30분)
- **카바디** 송도 글로벌 체육관 — 남녀 예선(11시)
- **럭비**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 남녀 7인제(12시9분)
- **요트** 왕산요트경기장 — 레이저급 등(12시)
- **세팍타크로** 부천체육관 — 남녀 레구(11시)
- **사격** 경기도 화성 종합사격장 — 남자 스키트 2일차(9시30분)
-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 여자 다이빙 플랫폼 싱크로 결승 등(14시)
- **탁구** 수원실내체육관 — 혼합복식 등(10시)
- **태권도** 강화 고인돌체육관 — 남자 -74㎏ 등(9시30분)
- **테니스**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 — 남녀 단식 결승(15시)
- **배구** 송림체육관·안산 상록수 체육관 — 남녀(12시)
- **레슬링** 도원체육관 — 남자 그레코로만형 59㎏ 등(13시)
- **정구** 열우물 정구장 — 남녀 개인단식(9시)
- **소프트볼** 송도LNG야구장 — 여자 단체전(11시30분)
- **크리켓** 연희크리켓경기장 — 남자 준준결승(9시30분)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72	72	54
2	대한민국	44	58	62
3	일본	35	47	60
4	카자흐스탄	15	18	22
5	이란	10	11	6

<29일 현재>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인천 AG 야구 재미있었나요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재미 있었나요? 한국은 실업 팀이나 다름없는 나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나마 긴장감 있는 승부는 대만과의 결승전뿐이었다. 8회 역전극으로 금메달을 따냈지만 눈물을 뿌렸던 군 미필선수들처럼 벅찬 감동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13명의 금메달 병역 미필자들은 유형무형의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당장 장성한 남자들이 감내해야 할 2년간의 군생활을 하지 않는다. 단 4주 동안 훈련만 받으면 끝이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가혹행위 등 각종 사건사고에 가슴을 졸이는 부모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FA 기한(고졸 9년, 대졸 8년)을 2년 앞당기는 효과가 생긴다. 2년 동안의 연봉은 물론 수 십억 원의 FA 몸값을 받을 수 있다. 병역걸림돌 없이 해외진출 기회가 열렸다. 야구재벌들이 줄줄이 나오게 생겼다. 군대를 갔다면 누리기 힘든 혜택이다.

처음부터 병역혜택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아쉬웠다. 엔트리 24명 가운데 미필자가 절반이 넘다 보니 언론이나 팬들은 병역혜택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병역혜택을 위한 대표팀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말았다. "대만을 두 번 이기고 제대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태극마크를 달고 땀 흘려 일구어낸 금메달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금메달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따낸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성원, 제도와 야구계의 물적 자산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때문에 이제는 혜택을 돌려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겸손한 플레이로 보답해야 한다.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한 봉사와 자선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그저 병역혜택과 큰 돈을 벌기 위한 금메달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몸짓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이동국의 노하우, 손흥민의 실력 신뢰"

'슈틸리케호 1기' 명단 박주영은 또 제외…내달 10일 첫 경기

한국 축구의 새 사령탑에 오른 울리 슈틸리케(60·독일·사진) 대표팀 감독이 22명의 태극전사를 확정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다음달 10일 열릴 파라과이와의 평가전과 14일로 예정된 코스타리카 평가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이달 초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 평가전에 출격했던 대표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주호(마인츠)·김승규(울산)·김승대(포항)가 국가대표로 뽑혔고 베테랑 이동국(전북)과 차두리(서울)가 슈틸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부임 후 아직 선수 파악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지원을 발탁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8일 우루과이 평가전을 지켜본 뒤 아시안게임 16강전과 K리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국내파 선수들을 점검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2골을 터뜨린 이동국은 1기 슈틸리케호의 핵심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다. 소속팀이 없는 박주영은 9월 평가전에 이어 10월 평가전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또 다른 공격 자원 이근호는 최근 엘 자이시(카타르)로 이적했기 때문에 소속팀 적응 차원에서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수문장으로 발탁된 김승규(울산)는 정성룡(수원)을 대신해 이름을 올렸고 유럽파로는 손흥민(레버쿠젠)·기성용(스완지시티)·이청용(볼턴)·구자철(이상 마인츠)·김진수(호펜하임)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민우(사간 도스)와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 2명은 일본에서 합류했다. 중동에서는 남태희(레퀴야)·한국영(카타르SC)·곽태휘(알힐랄)·이명주(알 아인)가 뽑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파라과이 준을 앞두고 "아시아 선수들은 활동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살려 팀을 운영할 것이다. 파라과이는 강한 팀이다. 상대 약점을 파악해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고 찬스를 덜 주는 등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며 "가장 좋은 팀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팀이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폭발력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감독은 또 "내년 1월 있을 아시안컵과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 34세~35세의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했을 경우 두세 달 정도 한국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힘들 수도 있다. 이동국은 이런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다"며 "손흥민은 23세임에도 레버쿠젠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 가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걱정할 뿐이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다음달 6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8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펼친다.

/김학철기자 kum1104@metroseoul.co.kr

'AG 금' 김광현 MLB 진출 가속도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결승전 한국과 대만의 경기에서 김광현이 삼진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

프로 7년차 FA 등록 요건 갖춰 관심

한국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26·SK 와이번스)이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수확에 기여하며 빅리그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김광현은 애초 올 프로야구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해도 자유계약선수(FA)로 해외진출 자격을 얻게 되는 프로 7년 요건에 8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 금메달을 따내면서 지난 15일 대표팀 소집일부터 결승전이 열린 28일까지의 13일이 추가로 적용돼 FA 등록 일수를 채우며 해외진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선수의 대표팀 소집기간 일수만큼 FA 일수에 더하는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프로 7년 차로 인정받은 김광현은 현 소속팀인 SK 구단의 동의가 있으면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등 해외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당장 이번 시즌을 마치면 메이저리그 포스팅시스템이 김광현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팅시스템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수 입찰 제도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로 외국인 선수로 구성된 특정 선수를 익찰 공고하면 희망하는 구단이 계약금과 연봉액을 제시하며 응찰하는 제도다.

이미 김광현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들어에 앞서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소속팀 SK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김광현의 의지를 고려하고 합리적인 포스팅 금액이 따른다면 해외 진출을 돕지 않겠나는 의견이 중론이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문학구장을 찾아 김광현의 투구를 여러 차례 지켜본 것과 올 시즌 현재 12승9패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해외 진출을 밝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27)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며 7년 FA 자격을 갖춘 뒤 포스팅시스템으로 지난해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한편 아시안게임으로 보름간 휴식을 취한 국내 프로야구는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 막바지 순위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즌 막판까지 순위를 예측할 수 없어 치열한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 SK, 두산, 롯데가 몰려 있는 4위 싸움이 최대 격전지다. 현재 4위 LG는 7위 롯데에 3.5게임 차로 앞서고 있다. 5위 SK와는 1.5게임, 6위 두산과는 2게임 차로 아슬아슬하게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학철기자

류현진 디비전 3차전 출격

구속 80% 회복…7일 세인트루이스전 유력

부상으로 정규시즌을 마감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포스트시즌에서 부활한다.

29일 MLB닷컴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류현진은 다음달 7일 열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불펜피칭 40개를 소화했다"고 밝혔다. 불펜피칭을 지켜본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재활 단계를 정확하고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MLB닷컴을 통해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부상을 당한) 왼쪽 어깨에 불편함이 없다.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자신의 최고 구속 80% 정도인 시속 136~138㎞의 공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류현진은 다음달 2일 마지막 재활 단계인 시뮬레이션 피칭(타자와 주자를 두고 실제 경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투구하는 것)을 소화할 예정이다. 매팅리 감독은 시뮬레이션 피칭 후 정확한 등판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무리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류현진은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에 이어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으나 어깨 통증을 느껴 1이닝(5피안타 4실점)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한편 올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은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9월 30일~10월 1일),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10월 2~9일), 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 4승제·10월 10~19일), 월드시리즈(7전 4승제·10월 21~29일) 순으로 열린다.

다저스는 커쇼(21승), 그레인키(17승), 류현진(14승), 댄 해런(13승) 등 막강한 선발진을 앞세운 1988년 이후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제패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와의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올해 6월 세인트루이스전에서도 7이닝 동안 3실점으로 역투했으나 패전투수가 됐다. /유순호기자 suno@